

## 圓行乙卯整理儀軌 中 調理面에서 본 粥床·米飲床 및 顯隆園에서의 상차림考

金尚寶·韓福真\*·李盛雨\*\*

대전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춘천전문대학 전통조리과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1989년 9월 29일 접수)

## A Study of Cookery of Daily Meal (Jook Soora Sang: Rice Gruel, Mieum Sang: Thin Gruel, Soora Sang and Bankwa Sang in Hyun Neung Won) in Wonheng Ulmyo Jungri Euigwae (1795)

Sang Bo Kim, Bok Jin Han\*, Sung Woo Lee\*\*

Dae Jeon Medical Junior College

\*Chun Cheon Junior Colleg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anyang University

(Received September 29, 1989)

### Abstract

To analyze dialy meal of royal meal, studied Jook Soora Sang (Rice Gruel), Mieum Sang (Thin Gruel) and Bankwa Sang, Soora Sang in Hyun Neung Won were on record Wonheng Ulmyo Jungri Euigwae (1795). Historic book "Jungri Euigwae" described the king's visit to his father's royal tomb "Hyun Neung Won", during the domain of Cheung Jo, the 22nd king of Choson Dynasty.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Rice Gruel (Jook Soora Sang), taken before breakfast, was arranged the same as the Soora Sang.

The table for thin gruel (Mieum) was arranged in three kinds of sets; one for thin gruel, the others for stewed meat (Goem) and sugared fruit (Jeong Kwa). The diet seems to have been quit scientific and restorative.

Bankwa Sang and Soora Sang in Hyun Neung Won was arranged the same as the other Bankwa Sang and Soora Sang. Therefore setting the table of royal meal had a rule.

### I. 序論

粥의 역사는 「書經」과 「禮記」<sup>1,84</sup>에 이미 그 기록이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기록들이 있어서, 대용주식, 별미물 보양식, 치료식, 환자식, 민속식, 구황식, 음료 등의 역할을 죽이 담당하였다. 朝鮮時代의 「青莊館全書(1795)」에는 “서울의 市女들의 죽파는 소리가 개부르는 듯하다”는 말로서, 1700年代에 죽은 시판할 정도로, 매우 보편화된 음식이었다.<sup>1,84</sup> 아침의 대용주식으로서의 粥은 일반인에게도 널리 퍼져 있어서

「林園十六誌」에는 張來의 「粥記」를 인용하여 “매일 아침에 죽 한사발을 먹으면 胃腸에 좋다. 이것은 음식의 最妙訣이다”라고 쓰고 있다.<sup>11</sup>

宮에서의 食習慣은 보통 王께서 아침 6시나 7시에 눈을 떠서 세수를 하시고 粥水刺를 드신 후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 입으시고 9시나 10시경 朝水刺를 접수시켜 되므로,<sup>2)</sup> 王 이하 일반인들의 아침의 粥食의 습관은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粥은 미음, 와이, 元米, 암죽 등으로 분화 발달하여서, 韓國人の 粥食生活의 독특한 文化를 구축하였다. 粥과 米飲의 差異

表 1. 遊行日程과 飲사리(前報 참조)<sup>10)</sup>

9日	10日	11日	12日	13日	14日	15日	16日
驛站 夜茶小盤果	始興站 胡水刺	華城站 朝水刺	華城站 朝水刺	華城站 朝水刺	華城站 朝水刺	華城站 朝水刺	始興站 夜茶小盤果
驛站 胡水刺	始興站 夜茶小盤果	朝水刺	夜茶小盤果	夜茶小盤果	夜茶小盤果	夜茶小盤果	胡水刺
始興站 夜茶小盤果	始興站 胡水刺	夕水刺	夕水刺	夕水刺	夕水刺	夕水刺	夕水刺
始興站 夕水刺	華城	夕水刺	夕水刺	夕水刺	夕水刺	夕水刺	夕水刺
始興站 夜茶小盤果	華城	夜茶小盤果	夜茶小盤果	夜茶小盤果	夜茶小盤果	夜茶小盤果	夜茶小盤果
			園所貯 茶小盤果	茶水刺			
				夕水刺			
				夜茶小盤果			
					米飲(八齊室前)	米飲(安養店前邊)	米飲(大皇橋南邊)
					米飲(中路)	米飲(中路)	米飲(馬場川橋北)
					米飲(園所後頭)		米飲(中路)
					米飲(中路)	米飲(日用甲前路)	

出選宮時 父 站에 父와 中路에서 父 站의 書吏와 熟手를 거느리고 米飲을 架子에 준비하여 기다렸다가 慈宮 및 大殿의 가마가 도착하면奉進하였다.

에 대하여 李晚永의 「才物譜(1807)」에는 “粥之瀆然者  
미음”이라 하였듯이,<sup>1,90</sup> 흰죽은 쌀을 불려 곱게 갈아  
끓이거나 그대로 끓이는데 비하여 미음은 쌀을 껍질만  
남을 정도로 충분히 고아서 체에 발친 것이다.<sup>1,90</sup> 따라  
서 米飲은 粥보다는 더 소화성이 있는 음식이고 粥보다  
는 훨씬 수분함량이 많은 “음료”에 가까운 음식이다.  
本論文은 「園行乙卯整理儀軌(1795)」 중 日常食의 하  
나인 粥水刺와 米飲을 中心으로 考察함으로서 1700년  
대의 粥水刺床과 米飲床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前報  
에서 이미 기술한 水刺床과 盤果床이 華城의 顯隆園(思  
悼世子陵)에서의 水刺床, 盤果床차림과 어떠한 差異가  
있는지를 알아 봄으로서, 1700년대의 水刺床차림에 대  
한 보다 명확한 제시를 하고자 하였다.

## II. 園行 日程과 상차림(前報참고)<sup>3)</sup>

前報에 상세한 園行 日程과 그에 따른 床차림을 기술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本報에서는 표 1로서 대신하기로  
한다. 대체로 粥水刺는 11, 13, 14일 아침에만 드셨는  
데 이것은 9, 10일은 宮에서부터 華城까지 오는 여행길  
이었고, 12일은 園所 展謁을 위하여 園所行이 있었고,  
15, 16일은 華城에서 宮으로 향한 歸宮길에 올랐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粥水刺가 들어있는 11, 13일(進饌日  
이기도 함), 14일은, 평상시의 宮에서의 日常食을 잡  
수신 것이며, 9, 10, 12, 15, 16일은 여행을 위하여 특  
별히 마련해서 올린 상차림으로서, 米飲이 粥水刺와는  
달리 9, 10, 12, 15, 16일에 올려졌던 것은 이 때문이  
다. 米飲은 여행에 지치신 몸을 보살펴 드리기 위하여

특별히 올려진 음식이었다. 특히 大殿(正祖)께는 전히  
米飲을 올리지 않았으며 慈宮(惠慶宮 洪氏: 正祖의 어  
머니)과 清衍郡主, 清端郡主(郡主는 王世子의 嫡女)에  
게만 올려진 음식이었다.

윤 2월 9일 王 일행은 園行길에 올랐다. 왕궁을 출발  
한 후 馬場川橋北과 中路에서 노탕참에서 만든 마음이  
봉진되었으며 다시 시흥참에서 만든 米飲이 安養店南邊  
과 中路에서 奉進되었다. 9일은 始興站에서 經宿하였고,  
10일은 대신 출발하여 顯龍站에서 만든 米飲이 日  
用里前路와 中路에서 각각 奉進되었고, 華城에 도착한  
후 華城站에서 만든 米飲이 大皇橋南邊, 園所時中路,  
還詣本站時에 각각 奉進되었다. 12일은 顯隆園(思悼世  
子陵)에 展拜하는 날로서, 華城站에서 만든 朝水刺  
晝茶小盤果를 드신 후, 顯隆園으로 향하였다. 顯隆園에 서는  
園所站(晝茶小盤果와 晝水刺를 위하여 齋室大門 밖  
東邊에 임시로 설치한 집)에서 만든 晝茶小盤果 晝水刺  
를 드시고, 역시 園所站에서 만든 마음을 入齋室時, 園  
所展謁時, 大皇橋南邊中路에서 각각 奉進되었다.

## III. 床차림

### 1. 粥水刺床

표 2는 11, 13, 14일의 粥水刺상차림에 대한 構成으  
로서, 前報<sup>3)</sup>의 飯水刺床차림의 구성을 비교시 粥과 飯  
에서의 差異만 보일 뿐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慈宮床과 大殿 및 郡主床에서의 粥水刺床의 구성상의  
공통점을 알기 위하여 표 2를 이용하여 노포를 만든 결과는 다음과 같다.

			元盤												挾盤						
饌品			粥	羹	助致	灸伊	佐飯	醢	片肉, 足餅	蒸	炙	煎	醬果	菜	沈菜	淡沈菜	醬	湯	煎	炙	蒸
粥	華	慈宮	11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水刺	城	大殿	11	●	●	●	●	●					○		●		●●				
			13	●	●	●	●	●							●		●●				
			14	●	●	●	●	●					○			●	●●				
站	郡主								○												

대체로 粥, 羹, 助致, 灸伊, 佐飯, 沈菜, 醬은 慈宮  
床, 大殿床 모두 공통으로 올라가는 饌品이었다(●에  
해당). 慈宮床에서는, 元盤에는 粥, 羹, 助致, 灸伊,  
佐飯, 醢, 菜, 沈菜, 淡沈菜, 醌以外에 蒸, 片肉,  
炙, 煎, 醌果 등이 올랐으며 挾飯에는 湯, 煎, 炙, 蒸  
등이 올랐고, 器皿數는 3일 전부 15器로서 元盤과 挾盤  
으로 나누어져 차려졌으며 元盤은 12器, 挾盤은 3器였  
고 醌은 器의 數에서 생략되었다. 大殿 및 郡主床의 器  
皿數는 3일 전부 7器로서 元盤만이 차려졌고 醌은 器의

數에서 역시 생략되었다.

前報<sup>3)</sup>의 水刺床차림과 饌品의 비교시 별다른 특색을  
찾을 수가 없었고 다만 佐飯에서 海衣(김)<sup>4)5)6)</sup>과, 菜에  
서는 水艾生菜(물쑥생채)가 일반 水刺床의 饌品에는 올  
라 있지 않은 식품이었다. 粥은 3일 모두 한결같이 죽의  
기본형인 白米粥으로서,<sup>5)6)</sup> 晝茶小盤果(11日), 晝菜  
小盤果(13日)에 올랐던 栢子粥, 白甘粥, 豆粥<sup>6)7)</sup>과는  
좋은 비교가 되는데, 따라서 初朝飯으로奉행되는 粥의  
형태는 白米粥이었고, 그밖의 상차림에 栢子粥(잣죽),

## 丑 2. 粥水刺床의 構成

對象	慈 宮			大殿都主		
場所	華城站			華城站		
日時	11日	13日	14日	11日	13日	14日
器皿數	15器			7器		
상 元盤(銀器·黑漆足盤)	粥 1 白米粥	1 白米粥	1 白米粥	1 白米粥	白米粥	1 白米粥
	羹 2 陳鷄白熟	2 雜湯	2 生雉熟	2 陳鷄白熟	雜湯	2 生雉熟
	助 3 昆者羹蒸	3 水蓋脂	3 骨卜只	3 竹蛤炒	水蓋脂	3 骨卜只
	致 4 竹蛤炒	4 生蛤炒	4 全鰻炒			
	炎 5 沈秀魚	5 沈鯖魚	5 生鰻	4 生鰻	鷄鳥、軟鰻、豆太	4 牛尾、牛心肉
	佐 6 石魚、海衣、不鹽民魚全鰻茶食	6 淡鹽民魚、大蝦半乾全鰻牛脯茶食、肉醬	6 石魚、大蝦魚卵、雉脯	5 石魚、海衣不鹽民魚全鰻茶食	淡鹽民魚、大蝦半乾全鰻牛脯茶食、肉醬	5 石魚、大蝦魚卵、雉脯
	蘸 7 蟹蘸	7 蟹蘸	7 蟹蘸			
	餅				6 足餅	
	片肉		8 陽支頭片肉	8 猪頭片肉		
	蒸 8 軟鰻蒸					6 生鰻、熟鰻、黃肉、豬肉、生雉
	炙		9 藥散炙			
	煎			9 胖煎		
	醬果 9 醬果			6 鷄鳥煎		
자리 菜	10 綠豆長音雜菜	10 蒜根熟菜	10 水艾生菜	7 蒜根	7 交沈菜	7 蒜根
	沈菜 11 蒜根	11 交沈菜	11 蒜根			
	淡沈菜 12 水芹	12 冬蒿	12 山芥			
	醬 13 良醬	良醬	良醬	良醬	良醬	良醬
	醋醬		醋醬	醋醬		
抹盤 盒器(黑漆足盤)	湯 13 松耳	13 錦中湯	13 豆太卜只			
	煎 14 鷄鳥煎					
	各色煎		14 足餅 骨煎			
	炙 15 生鰻	15 豆太、鷄鳥、軟鰻	14 牛尾 牛心肉			
	各色蒸			15 生鰻、熟鰻 黃肉、豬肉 生雉		

白甘粥(식혜죽), 豆粥(팥죽)과 같은 종류가 올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洪萬選(1643~1715)의 「山林經濟」에 나와있는 粥으로는 “蓮子粥”, “海松子粥(잣죽)”, “青太粥(파란콩죽)”, “瓠粥(박죽)”, “葵菜粥(아욱죽)”, “麥粥(보리죽)”, “雛粥(병아리죽)”, “牛臘粥(쇠양죽)”, “鮑魚粥(붕어죽)”, “石花粥(굴죽)”, “蒜根粥(연뿌리죽)”, “火仁粥(거시연밥의 알멩이죽)”, “菱角粥(마름죽)”, “葛根粥(칡뿌리녹말죽)”, “黃栗粥(밤가

루죽)”, “全鰻粥(전복죽)”, “紅蛤粥(홍합죽)”, “牛肉粥(쇠고기죽)” 등이 있고 동물성 재료는 뚝 고아서 쌀과 합하여 죽을 쑤고 식물성 재료는 곱게 가루를 만들어 쌀과 섞어서 죽을 쑨다 하였다. 따라서 1700년대의 粥의 種類가 상당히 많은 것에서 粥文化의 발달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여러 古料理書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죽을 쑤는 방법이 오늘날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며, 「是譏方」의 “柏子粥”, “진자죽(개암죽)”, “행인

## 五 3. 米飲床의 構成

對象	慈宮 및 郡主														
器皿	盞器 圓足 鍾鈸盤														
器皿數	3器														
日時	9日				10日				12日				15日		
場所	鷺梁站		始興站		肆觀站		華城站		圓所站		華城站		肆觀站	始興站	鷺梁站
	馬場川 橋北	中路	安養店	中路	日用里	中路	大皇橋	圓所時	還詣	入齋室	圓所展	大皇橋	日用里	安養店	馬場川 橋北
米飲	大棗 米飲	白 米飲	大棗 米飲	白 米飲	秋李 米飲	白 米飲	大棗 米飲	白 米飲	蓼蛤 米飲	白 米飲	青梁 米飲	大棗 米飲	黃梁 米飲	清梁 米飲	白甘 米飲
膏飲	胖 全鰻 陳鶴 紅蛤	胖 都干伊 陳鶴	胖 都干伊 陳鶴 牛臂	胖 全鰻 陳鶴 牛臂	鷄 膏	胖 膏	鮑 魚膏	鮑 魚膏	陳鶴 生堆		雜湯	鮑 魚膏	胖 全鰻 陳鶴 牛臂	胖 都干伊 陳鶴	胖 全鰻 陳鶴 紅蛤
品果	正 果	山楂 木蘆 柚子 生蘆 冬蘆 冬梨 煎藥	山楂 木蘆 柚子 生蘆 冬蘆 冬梨 桔蔓	山楂 木蘆 柚子 生蘆 冬蘆 冬梨 桔蔓 柑子 桔蔓 柑子 生梨 煎藥	冬蘆 生蘆 柑子 蓮根 生梨		梨熟	山楂 蓮根 柑子 柚子 生梨 生蘆 桔蔓 木蘆 煎藥		山楂 蓮根 柑子 柚子 生梨 生蘆 桔蔓	冬蘆 生蘆 柑子 蓮根 生梨	山楂 木蘆 柚子 生蘆 冬蘆 冬梨 桔蔓	山楂 木蘆 柚子 生蘆 冬蘆 桔蔓 柑子 生梨 煎藥	山楂 木蘆 柚子 生蘆 冬蘆 桔蔓	

죽(호도죽)", "장국죽", 8.544-545 「婦人必知」의 "죽", "타락죽", "팥죽" 9.573 「冽陽歲時記」의 "赤豆粥"<sup>10.586</sup> 「東國歲時記」의 "赤豆粥"<sup>11.587</sup> 등으로 粥조리법이 참고된다. 上記의 粥以外에도 무우죽, 당근죽, 쇠비름죽, 균대죽, 시금치죽, 냉이죽, 미나리죽, 참깨죽, 마죽, 茄苳죽, 百合죽, 대추죽, 들깻죽, 梅花죽, 방풍죽, 도토리죽, 생강죽, 黃精죽, 地黃죽, 枸杞죽 등이 각종 古料理書에 등장하고 있다.<sup>1,88</sup>

粥水刺에 사용된 器用은 飯水刺와 같이 慈宮床의 元盤은 黑漆足盤에 銀器를 挾盤은 黑漆足盤에 盞器를 사용하였으며, 大殿 및 郡主床은 黑漆足盤의 元盤에 鍾鈸盤을 사용하였고, 기타 周鉢, 湯器 등, 飯水刺에 사용된 器皿을 사용하였다.

## 2. 米飲床

米飲床의 構成은 표 3과 같이 米飲1器, 膏飲1器, 正果1器로 모두 3器이었으며, 器皿은 盞器로 圓足鍾鈸盤에 받들어졌다. 出選宮 時와 中路에서 慈宮과 郡主에게만 올려졌고, 9日 4회, 10日 5회, 12日 3회, 15日 2회, 16日 2회, 합하여 총 16회 봉행되었다. 올려진 米飲은 白米飲 5회, 大棗米飲 4회, 清梁米飲 3회(생동찰미음), 秋李米飲(가을보리미음) 1회, 蓼蛤米飲(해삼,

홍합, 쇠고기미음) 1회, 黃梁米飲(메조미음) 1회, 白甘米飲(식혜미음) 1회로서 白米飲, 大棗米飲, 清梁米飲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米飲의 調理法에 대한 참고는 「是議方」의 "삼합미음"<sup>12.544</sup>과 黃<sup>12.187-188</sup>에 의한 "멥쌀미음", "메조미음", "삼합미음", "속미음" 등이 있다. 米飲과 같이 올려진 饋品의 하나이기도 한 膏飲은 일종의 "국"의 형태로서 「是議方」의 "고음국"에는 "다리뼈, 사태, 도가니, 흙떼기, 고리, 양, 곤자소니, 전복, 해삼을 큰 솥에 물을 많이 붓고 만화로 끓고 야야국이 진하고 뽐얗다"고 하였다. 따라서 12日 大黃橋南邊中路에서 올려진 米飲床에서는 膏飲 대신에 雜湯이 올라간 것이 이해가 되며, 米飲床에서 湯이라 하지 않고 膏飲이라 한 것은 膏는 "기름질고"<sup>13)</sup>이고, 膏飲이란 "고기나 생선을 끓여 삶은 국"<sup>13)</sup>으로서, 현재의 "곰국"에 해당된다.

熱量이 별로 없는 糖質식품인 米飲에 蛋白質이 진하게 함유되어 있는 "곰국"을 곁들여 올린 것이다. 膏飲의 材料는 (양, 전복, 묵은닭, 홍합), (양, 전복, 묵은닭, 소의 우둔살), (양, 도가니, 묵은닭), (양, 묵은닭, 평), (닭), (양), (봉어)로서 한 가지에서 네 가지의 재료로서 이루어져 있어서, 胖, 陳鶴, 牛臂, 都干伊, 生堆 외에 全鰻, 紅蛤, 鮑魚가 주材料였음을 알 수

있다. 米飲과 같이 올려진 또 다른 饌品의 하나인 正果는 일종의 후식으로 올려진 식품으로 보아지는데 여러 종류의 정과를 한 접시에 담아 올렸고, 12日 圖所展謁時에 올려졌던 米飲床에서는 正果 대신에 梨熟(“배숙”으로 사료됨)이 보이는 것이 특색이며, 총 16회의 米飲床에서 8회의 正果에 “煎藥”이 끼어 있었다. 煎藥은 「四季의 朝鮮料理」<sup>15,18</sup>(1946),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sup>16,259</sup>(1943), 「簡便料理製法」<sup>17,54</sup>(1935), 「新營養料理法」<sup>18,248</sup>(1935)에도 그 조리법이 나와 있어 1930, 1940년대에도 즐겨먹던 식품으로 생각되는데 「東國歲時記」에서는 “煎藥”을 “내의원에서는 계피, 후추, 당밀로서 牛皮를 삶아 膏모양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전약이라 한다”라고 하였듯이 일종의 藥餌性 Gelatin 이<sup>14,86</sup> 영양을 생각하여 饌品의 한 가지로서 올려졌다. 正果의 種類는 盤果床에 차려졌던 연근정과, 산사정과, 감자(柑子)정과, 유자정과, 배정과, 모과정과, 동아정과 외에<sup>67)</sup> 桔蔭정과가 것들여진 것이 盤果床의 各色正果와 다른 점이었다. 正果의 자세한 것은 盤果床<sup>7)</sup>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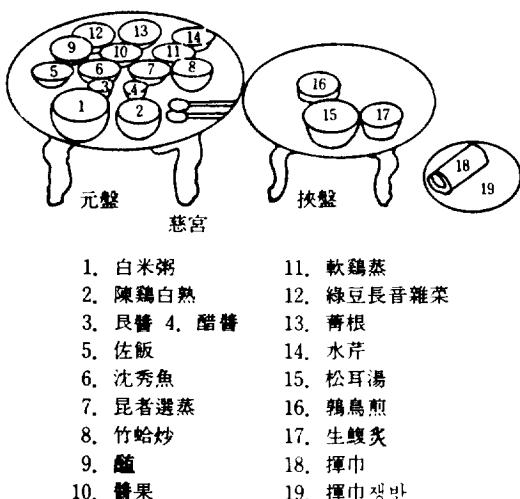


圖 1. 圓行乙卯整理講軌의 11日 粥水刺床차림의 복원  
圖(慈宮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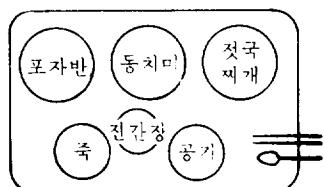


圖 2. 黃慧性 교수에 의한 粥床 차림

### 3. 黃慧性 教授의 粥床 및 米飲床 차림과의 비교 분석

圖 1은 11日 慈宮께 올려진 粥水刺床차림의 복원<sup>1</sup>이  
며 圖 2는 黃에 의한 粥床차림이고,<sup>12,123,15,136</sup> 圖 3은  
慈宮 및 郡主께 올려진 米飲床의 복원<sup>1</sup>이며, 圖 4는  
黃에 의한 米飲床차림이다.<sup>12,123,15,136</sup>

圖 1,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粥床차림의 현격한 差異를 알 수 있는데, 慈宮께 올려진 즉상차림의 饌品은 飯水刺床의 饌品과 비교時, 飯과 粥의 差異만 보였을 뿐이고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黃에 의한 粥床차림은 饌品의 구성에 있어서 죽, 자반, 동치미, 조치, 간장으로서 간단한 상차림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米飯床에 있어서도 慈宮과 郡主께 올려진 米飲床의 饌品은 米飲, 膏飲, 各色正果로 일정한 형식을 보였음에 반하여 黃에 의한 米飲床의 饌品은 米飲, 청장, 꿀, 자반, 동치미, 소금으로서, 상차림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차림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긴 것인가에 대하여 앞으로究明해야될 문제로 사료된다. 다만 黃慧性 교수의 이러한 상차림은 韓熙順尙宮(1889~1972)으로부터 전수받아 체계를 세운 것이라 함은 前報 서론에서 이미 밝혔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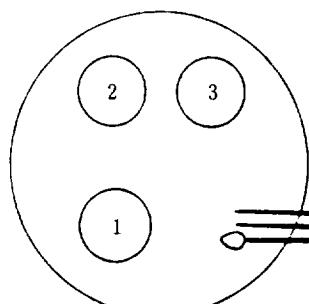


圖 3. 圓行乙卯整理講軌의 米飲床차림의 복원圖(慈宮 및 郡主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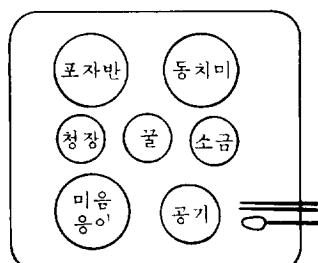


圖 4. 黃慧性 교수에 의한 米飲床차림

표 4. 園所에서의 畫茶小盤果와 畫水刺

場所	圓 所 站									
日 時	12日									
對 象	慈 宮					大殿 郡主				
器皿	17器 磁器 黑漆足盤					元盤 10器, 挾盤 3器, 黑漆足盤				
상차림	畫茶小盤果 (亭)					畫水刺				
饌 品	麵 ①	麵				飯 ①	赤豆水和炊		飯 ①	赤豆水和炊
	餽頭 ②	魚餽頭				羹 ②	雜湯		羹 ②	雜湯
	湯 ③	別雞湯				助致 ③	胖餽頭		助致 ③	軟鷄蒸
	炙 ④	各色花陽炙	4			炙致 ④	軟鷄蒸		炙伊 ④	錦鱗魚、胖、腰骨、生雉 軟鷄、熟鰻、辛甘草
	片肉 煎油化	各色煎油化、片肉	4			炙伊 ⑤	牛肉、內腸、熟鰻 辛甘草、生葱		佐飯 ⑤	秀魚醬、藥乾雉、鹽脯、 全鰻包、不鹽民魚、甘苔 魚卵、醬卜只
	魚菜 ⑥	各色魚菜	4			佐飯 ⑥	秀魚醬、藥乾雉、 藥脯、全鰻包、 不鹽民魚、魚卵 醬卜只		沈菜 ⑥	桔蔓、薺根、水芹、 辛甘草、菉豆長音
	造 果	⑦ 各色餅	5			醸 ⑦	蝦魚卵、明太古之 洪魚卵、蟹卵 蟹醸		淡沈菜 ⑦	交沈菜
	類	⑧ 藥飯				菜 ⑧	桔蔓、薺根 水芹、辛甘草 菉豆長音、冬菰			
		⑨ 茶食果	5			沈菜 ⑨	交沈菜			
		⑩ 各色軟絲果	4			淡沈菜 ⑩	蔓菁、薺根、青菰 水芹、柚子、生梨			
		⑪ 各色強精	4			醬	水醬 醋醬 煎醬			
		⑫ 各色茶食	4				以上 元盤 10器			
		⑬ 各色糖	4				湯 ①	醋鷄湯		
		⑭ 紫卯栗卯山藥躉柿	4				各色魚肉炙伊	鴟飛、全雉首、軟鷄、 肝、腰骨、錦鱗魚、青魚		
		⑮ 生梨柚子柑子石榴					蒸 ③	鮆魚蒸		
		⑯ 各色正果						以上 挾盤 3器		
飲料	⑰ 水正果									
清	清									
醬	醋醬									
床花	小水波蓮 紅桃別三枝花 建花 紅桃間花 紙間花	1箇 2箇 2箇 3箇 4箇								

## 4. 園所에서의 畫茶小盤果와 畫水刺

표 4는 華城의 顯隆園에서의 畫茶小盤果와 飯水刺床 차림의 구성표이다. 畫茶小盤果는 慈宮만을 위하여 차려졌으며, 畫水刺는 慈宮과 大殿 郡主에 모두 올려졌다. 園行乙卯整理儀軌에 나타난 상차림은 물론 行宮에 의한 상차림이긴 하나, 驚梁站이 9, 16日, 始興站이 9, 10, 15, 16日, 肆觀站이 10, 15日, 華城站이 11, 12, 13, 14日로 각각 이를 또는 사흘 동안 상차림이 차려진 반면 園所站에서의 畫水刺는 慈宮과 大殿 郡主에 1회 올려졌다.

으며 畫茶小盤果는 慈宮만을 위하여 1회 올려졌다. 따라서 園所에서의 床차림이 혹시나 行宮에 의하여 간소화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하에 顯隆園에서의 盤果床과 畫水刺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9일에서 16일 까지의 畫茶小盤果 상차림과 12일 園所에서의 畫茶小盤果 상차림의 器皿數와 床花數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표 6은 園所에서의 畫茶小盤果의 饌品, 材料와 分量, 고임높이에 대한 표이다. 이들을 9일에서 16일 사

표 5. 園所에서의 畫茶小盤果의 상차림 구성

日時, 場所	12日 園所		
器皿, 床	17器 磁器 黑漆足盤		
對象	慈宮		
상차림명	畫茶小盤果		
饌品의 材料 및 分量	麵 1器	木末 3升, 蓿末 5合, 生雉 1脚, 黃肉 3兩, 鷄卵 3箇, 民醬 5夕, 胡椒末 1夕	
	別雜湯 1器	黃肉 2兩, 熟肉 2兩, 肥 2兩, 昆者翼 2兩, 猪胞 2兩, 生豬肉 2兩, 熟豬肉 2兩 頭骨 1/2部, 秀魚半尾, 陳鷄 1脚, 海蔘 2箇, 鷄卵 2箇, 全鰻 1箇, 薑根 1箇, 青苔 1/2箇, 朴古之 1吐里, 水芹 1/2丹, 真油 1合, 良醬 1合, 蓿末 5夕, 藥古 5夕 實柏子 2夕, 胡椒末 2夕	
	各色煎油花 片肉 1器	秀魚 2尾, 肝 1斤, 肥 2斤, 生雉 1首, 鷄卵 70箇, 真油 2升, 真末 1升, 蓿末 1升 木末 1升, 鹽 5合, 猪胞 2部, 猪頭 1/2部, 陽支頭 1/2部	
	各色魚菜 1器	秀魚 3尾, 肥 1斤, 全鰻 2箇, 海蔘 5箇, 藥古 1合, 石耳 1合, 辛甘草 1握	
	各色花陽炙 1器	黃肉 4斤, 猪肉 8兩, 肥 8兩, 全鰻 3箇, 海蔘 7箇, 真油 2升, 真末 2升, 實荳子 1升 良醬 1升, 鷄卵 40箇, 生葱 25丹, 桔菱 2丹, 藥古 1合, 石耳 1合, 胡椒末 3夕	
	魚餽頭 1器	秀魚 1/2尾, 熟肉 1斤 10兩, 熟豬肉 1斤 10兩, 肥 10兩, 生雉 1首, 陳鷄 1首, 太泡 1隅, 真油 1合 5夕, 生薑 2角, 生葱 1/2丹, 實柏子 1合, 蓿末 7合, 胡椒末 1夕, 鹽 2合	
	各色餅 1器	粘米 1斗, 白米 1斗 3升, 大棗 2升, 真油 2升, 生栗 5升, 乾柿 2串, 清 1升, 實柏子 1升, 石耳 3升, 梅子 1錢, 松古十片, 膽脂 2椀, 柱皮末 5錢	
	藥飯 1器	粘米 3升, 大棗 3升, 實生栗 3升, 真油 5合, 清 1升 5合, 實柏子 1合, 民醬 1合	
	茶食果 1器	粘米 1斗, 真油 4升, 清 4升, 乾薑末 5分, 柱皮末 1錢, 實柏子 5合, 胡椒末 5夕 砂糖 1圓	
	各色軟絲果 1器	粘米 4升, 細乾飯 1升 5合, 真油 1升 5合, 芝草 4兩, 白糖 1斤 3兩, 實柏子 3升 3合, 清 4合	
	各色強精 1器	粘米 3升 5合, 細乾飯 2升, 實荳子 1升, 松花 7合, 實柏子 1升 5合, 真油 2升 5合 白糖 2斤 8兩, 清 5合, 芝草 2兩	
	各色茶食 1器	黃栗 2升 5合, 黑荳子 2升 5合, 松花 2升 5合, 葛粉 2升 5合, 膽脂 3椀, 清 1升 8合, 五味子 3合	
	各色糖 1器	人參糖, 五花糖, 玉春糖, 八寶糖, 橘餅合計 4升	
	棗卵·栗卵· 山藥, 踵柿 1器	黃栗 1升, 清 1升, 大棗 3升, 熟栗 3升, 柱皮末 2錢, 實柏子 2升 5合, 山藥 3丹 踵柿 30箇	
	生梨, 柚子, 柑 子, 石榴 1器	生梨 5箇, 柚子 5箇, 柑子 7箇, 石榴 7箇	
	各色正果 1器	蓮根 7本, 山楂 3升 5合, 柑子 7箇, 柚子 4箇, 生梨 4箇, 木蘋 4箇, 冬蘋 4片 生薑 1升 5合, 清 2升 2合	
	水正果 1器	生梨 2箇, 柚子 1箇, 石榴 1/2箇, 清 2合, 實柏子 3夕	
	清 1器	清 3合	
	醋醬 1器	良醬 2合, 醋 1合, 實柏子 1夕	
	床花 12箇	小水波蓮 1箇, 紅桃別三枝花 2箇, 建花 2箇, 紅桃間花 3箇, 紙間花 4箇	

이의 다른 畫茶小盤果 상차림<sup>2)</sup>과 비교시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畫水刺宋을 올려졌던 10, 15, 16일의 慈宮 및 大殿 郡主에 올려진 상차림<sup>3)</sup>을 12日 園所에서 올려진 畫水刺宋과 비교한 표 7과 같이 器皿의 數나

器皿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또한 饌品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당시 宮에서 올려졌던 상차림은 일정한 법칙하에 床차림이 차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6. 各 畫茶小盤果의 器皿과 床花數의 비교

대상	日	상차림	器皿數		床花數
			元盤	挾盤	
慈宮床	9	畫茶小盤果	17器	11箇	
	10	"	16器	10箇	
	11	"	17器	12箇	
	12	"	17器	12箇	
	14	"	17器	12箇	
	15	"	16器	10箇	
16		"	16器	10箇	
	12 (圓所)	畫茶小盤果	17器	12箇	

표 7. 各 畫水刺 器皿의 비교

대상	日	상차림	器皿數		器皿
			元盤	挾盤	
慈宮	10	畫水刺	10器	3器	銀器 鑑器
	15	"	10器	3器	銀器 鑑器
	16	"	10器	3器	鑑器 畫器
	12 (圓所, 畫水刺)	10器	3器	銀器 畫器	
大殿郡	10	畫水刺	7器		鑑器
	15	"	7器		鑑器
	16	"	7器		鑑器
主	12 (圓所, 畫水刺)	7器		鑑器	

#### IV. 맺는말

18세기의 후반의 朝鮮王朝의 日常食을 究明하기 위하여 粥水刺, 米飲상, 圓所에서의 畫茶小盤果, 畫水刺를 「圓行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考察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初朝飯으로 올려졌던 粥水刺는 그 饌品의 구성을 있어서 飯水刺 상차림과 비교시 粥과 飯의 差異만 있었을 뿐이고 다른 것은 飯水刺와 같았다.

2. 粥水刺의 饌品을 담았던 器皿과 床도 飯水刺의 그 것과 같았다.

3. 따라서 18세기 후반의 粥水刺상 차림은 오늘날의 죽상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4. 米飲床의 구성을 米飲1器, 酒飲1器, 正果1器로

서, 粥床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미음상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5. 미음상에 올려졌던 器皿은 畫器와 圓足鑑錘盤이었다.

6. 圓所에서의 畫茶小盤果 畫水刺의 饌品의 구성을 9일에서 16일 사이에 鷺梁站, 始興站, 肆觀站, 華城站에서 올려졌던 畫茶小盤果 畫水刺의 饌品의 구성을 비교시 별다른 차이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 따라서 行宮에 의한 상차림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宮에서 올려졌던 상차림은 일정한 법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李盛雨, 韓國料理文化史, 教文社, 1985.
- 黃慧性, 石毛直道, 韓國의 食, 平凡社, 1988.
- 金尚實, 韓福眞, 李盛雨, 圓行乙卯整理儀軌 中 調理面에서 본 水刺床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4, No.2, 1989.
- 許筠, 屢門大略, 黃海成편, 韓國料理百科事典, 三中堂, 1976.
- 黃慧性, 韓國民俗大觀, 高大出版部, 1980.
- 圓行乙卯整理儀軌, 10卷 8冊 中 4卷.
- 金尚實, 韓福眞, 李盛雨, 圓行乙卯整理儀軌 中 調理面에서 본 盤果床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4, No.4, 1989.
- 是議方, 黃海成편, 韓國料理百科事典, 三中堂, 1976.
- 婦人必知, 黃海成편, 韓國料理百科事典, 三中堂, 1976.
- 金遇淳, 洪陽歲時記, 黃海成편, 韓國料理百科事典, 三中堂, 1976.
- 洪錫謨, 東國歲時記, 黃海成편, 韓國料理百科事典, 三中堂, 1976.
- 黃慧性, 韓國料理百科事典, 三中堂, 1976.
- 張三植, 大漢韓辭典, 進賢書館, 1982.
- 金春蓮, 18世紀 宮中飲食考, 大한가정학회지, Vol. 22, No.4, 1984.
- 皿季의 朝鮮料理, 1946.
- 李用基, 朝鮮無變新式料理製法, 1943.
- 李 奥, 簡便料理製法, 1935.
- 李德萬, 新營養料理法, 1935.